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김혜숙¹, 송환²

¹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The Effect of the Convergence Learning on Self-Oriented Learning Skil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in Social Customized Curriculum

Hye Sook Kim¹, Hwan Song^{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및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비교연구로, C대학의 교육과정을 수강한 간호학과 졸업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융합수업 적용 전보다 적용 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전공만족도는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간호대학 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답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과 대학 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융합수업,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before and after a single group to identify the effect of convergence class operation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the social-tailored curriculu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79 nursing students from C Univers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level have been improved since application before applying convergence clas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open and operate various curricula in nursing colleg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community,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opportunities, cultivate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and major satisfaction so that learners can solve problems themselves in order to maximize their effects, and develop various contents in the univers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Learning, Self-Oriented Learning Skill, Problem Solv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1. 서론

간호학은 건강문제 관련하여 인간의 반응을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학문으로서[1],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변화에 역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호역량이 요구되며[2,3], 이러한 급박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4]. 또한 의료계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탄력적인 사고와 협력적 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Corresponding Author : HwanSong(songhwan@cdu.ac.kr)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다[5].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직을 결정한 상태로 학과에 입학하면서 [2], 학부과정 동안 학과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직업의 태도와 자세를 형성해 나간다[6].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7]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역량을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등을 간호교육의 목표와 학습 성과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 중 문제해결능력은 의료소비자의 간호서비스 요구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4], 현재 상황과 성취해야 할 목표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능력[8]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변에서의 자원을 찾아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9].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은 간호학생이 익숙하지 않은 임상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과 대처행위에 해당된다[1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현장에서 조력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계획 및 실행, 평가 과정을 주도하는 학습능력으로[4], 긍정적 행동을 유도한 이후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도 포함된다[6]. 복잡한 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다[4].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만족과 학습몰입을 향상시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11].

전공만족도는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며, 미래 전공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이다[12]. Choi 등[13]은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향후 진로준비도 잘 한다고 하였다.

간호학의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 학기의 수업의 목표가 분산되어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효과성 있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 강의식 수업방법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학습방법이 효과적 일수도 있다[14]. 간호학과에서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효과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15],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면대면 학습 보다는 이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을 원하는 경향이 있고 학습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5],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블렌디드 러닝 수업과 융복합 수업을 적용하였다.

한편, 졸업 후 청년 직장 이직률이 2006년 8.4%에서 2015년 17.7%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 내용이 본인 수준보다 높고, 전공과 업무에서의 불일치 경험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16]. 그로 인해 학문 중심의 대학 교육과정과 더불어 취업을 전제로 산업체와 학과의 전문 교육과정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16]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2016)[17]는 지역사회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여 해결하면, 대학과 산업체 간 인력 미스매치와 취업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대학-기업은 산학협력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취업을 전제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역대학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18]. 이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을 전제로 한 사회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시킨 학생들의 융합수업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융합수업 운영에 대한 활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및 취업을 향상 정도를 파악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2)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4)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5년간 취업률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및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비교연구이다.

2.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Guglielmino(1977)[19]의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검사(SDLRS)를 Yoo와 Cheong[2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5점 척도로 6개의 하위영역인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 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Cheon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1.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4]로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1.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Ha[21]가 수정한 34개 학과만족 도구를 Lee[22]가 전공만족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학과의 일반적 만족사항 6문항, 전공 관련 사회 인식 6문항, 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성 만족 3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5점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1.4 취업률

취업률은 졸업예정자 학생이 의료기관에 취업한 명수를 합산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C대학에, 간호학과 졸업 후 지역의료기관의 선 취업을 전제로 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이 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한 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수강신청 당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전체 간호학과 학생 중 일부 학생만이 이 과정을 신청하여 분반 수업 진행이 어려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단일군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프로그램 G. Power 3.17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paired t-test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단일집단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50으로 설정하였으며 변수는 3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각 집단별 로 요구되는 최소 대상자 수는 64명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총 79명으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융합수업 진행 및 적용

2.3.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개발 및 융합수업 운영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융합수업은 선 취업을 약속으로 협약된 5개 의료기관과 일개 학과에서 진행되었으며, 산업체에서는 취업 확정된 학생들에게 산업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지금까지 5년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한 총 학생 수는 79명이었다.

본 연구에 적용한 융합수업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지역사회에 요구사항을 혼합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두개 학과 교수자의 전공을 혼합한 융·복합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간호학과 졸업 학생이라면 한국간호교육평가원[7]에서 요구되어지는 전공 이수학점 이외의 학점과 별도 과목으로 운영되었고, Pass/Fail로 측정되었다.

맞춤형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3학점의 15주 수업으로 총 7차시 21시간에 걸쳐 융합수업이 진행되었다. 융·복합수업의 내용은 4단계로 사전설문지 작성, 강의/동영상 시청, 병원분석 및 방문 프로그램, 팀 아이

디어 창출 및 최종발표, 피드백 및 토의, 사후 설문지 작성 단계이다<Table 1>. 블렌디드 러닝 학습법을 적용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4주 분량의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강의내용은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간호사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분류된 간호사 안전교육 및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 질 관리, 의료커뮤니케이션, EMR 교육 및 간호정보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 강의시간에는 추가 강의 후 필요한 질문을 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1주의 융합수업은 수업 전 교육과정 소개하고, 두 교수의 전공과목을 특성을 살려 면담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취업 할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주의 수업과정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명사 찾기를 통하여 의료기관 부서장과의 미팅을 주선하여 취업에 필요한 조언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1주의 수업과정 중 활동으로는 취업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찾아보고 그 다음 1주는 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발표하는 등 피드백과 토의 시간을 가지며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성찰일지는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하여 두 교수가 점검하였다. 융합교육의 내용으로는 각자의 전공과목에 맞게 수행하였다.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학과의 취업의 모의면접과 임상현장에서의 필요한 정보, 취업에 필요한 내용 강의 및 소개 등과 부서장 미팅을 주선하고, 뷰티디자인학과 교수는 대인관계 소통과 고객응대 및 서비스 마인드 형성, 간호사 창업관련 내용, 직장 내 적응력 등의 강의를 하였다. 학생들은 타 전공교수와의 상호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본 과정은 5년 동안 매년 같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으며, 수업 전 사전 설문조사 후 의료기관 매칭 후 졸업 시점에 사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매뉴얼대로 수업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과는 졸업예정자들이 설문 조사시점에 만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Table 1. Convergence course of teaching

Stage	Content of Education	Note
	Preparation of preliminary Questionnaire	
4 Weeks	Video/Lecture	
1 Week	Hospital analysis/Visit	
1 Week	Idea Creation/Final Announcement	
1 Week	Discussions/ Feedback	
	Post-Questions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사전·사후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및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생의 일반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68명(86.1%), 종교는 없는 경우가 45명(57.0%)으로 많았다. 성적은 중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59명(74.6%) 이었고, 과제 수행 시 팀 역할에서 팀원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7명(84.8%), 교과 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명(83.5%), 간호학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4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 연도별 학생 수와 취업률은 2015년 16명, 2016년 14명, 2017년 10명, 2018년 19

명, 2019년 20명으로 총 79명이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Pass 한 후 의료기관과 확정되어 3월 1일자로 100% 취업을 하게 된다.

3.2 융합수업 운영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차이

융합 수업운영 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제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융합수업 적용 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3.22±.40에서 적용 후 4.02±.23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3.117, p<.001$). 문제해결능력은 3.42±.36에서 적용 후 4.12±.11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15.055, p<.001$), 전공만족도는 3.54±.50 에서 적용 후 3.97±.36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396, p<.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9)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11(13.9)
	Female	68(86.1)
Religion	Yes	34(43.0)
	None	45(57.0)
Grades	Above	10(12.7)
	Medium level	59(74.6)
	Low level	10(12.7)
Team role part	Leader	12(15.2)
	Team member	67(84.8)
Extracurricular activity	Yes	66(83.5)
	No	13(16.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Yes	64(81.0)
	No	15(19.0)
Curriculum Students by Year	2015	16
	2016	14
	2017	10
	2018	19
	2019	20

Table 3. Differences in self-Orien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social-related curriculum related to convergence classes (N=79)

Variables	Pre	Post	t	p
	M±SD	M±SD		
SOS	3.22±.40	4.02±.23	-13.117	<.001
PSA	3.42±.36	4.12±.11	-15.055	<.001
MS	3.54±.50	3.97±.36	-7.396	<.001

SOS: Self-Oriented Learning Skill
PSA: Problem Solving Ability,
MS: Major Satisfaction

3.3 융합수업 운영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5년간 취업률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한 학생의 연도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15명(93.7%), 2016년 14명(100%), 2017년 8명(80%), 2018년 19명(95.0%), 2019년 졸업생 20명(100%)으로 총 졸업한 학생 수는 79명이었다. 5개 의료기관에 3월 1일자 취업한 학생은 100%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유지 취업률은 2015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1명의 총 3명의 졸업생이 중도 탈락하여 96.2%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mployment rate and maintenance employment by year (N=79)

Variables	Year	N	Maintenance employment rate(%)
Curriculum Students by Year and Employment Rate	2015	16	15(93.7)
	2016	14	14(100)
	2017	10	8(90)
	2018	19	18(95.0)
	2019	20	20(100)

4. 논의

본 연구는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및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비교연구이며, 주요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융합수업 운영 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학생의 적용 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3.22±.40에서 적용 후 4.02±.23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3.117, p<.001$). 이는 이러닝 강

좌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5점 만점에 3.32점의 결과를 나타낸 Choi와 Choi[23]의 연구결과와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고 대조군의 3.31점에서 실험군 3.45점의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Ha 등[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Choi와 Choi[23]은 이러닝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5점 만점에 3.50점으로 상승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업운영의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내적 동기 향상이 학습 전략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향상되고 공동의 학습과제, 즉 취업이라는 성과를 이루는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동일한 교수법은 아니지만 블렌디드 러닝이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적용되고, 차별화된 창의적 접근을 하며,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다음 학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25]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융합수업 운영 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 호학생의 융합수업 적용 전 문제해결능력은 3.42±.36점에서 적용 후 4.12±.11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5.055$, $p<.001$). 이러한 결과는 S-PBL 기반 급성천식 환자간호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전통적인 강의와 술기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과정 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26] 보고한 연구와 문제해결능력은 SBAR 보고양식에 의한 교육훈련 전 3.32±0.38점에서 교육훈련 후 3.38±0.39점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한[27]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제적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27]해 주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은 문제를 명료화하기 위한 정보수집 능력과 새로운 방식에 과감하게 도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험 감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4]. 그러므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적용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발적 참여로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

업에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문제중심 학습과정[28]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요구에 의한 교육과정 개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미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체 요구에 맞는 융복합 수업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융합수업 운영 적용 전·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 호학생의 융합수업 적용 전 전공만족도는 3.54±.50에서 적용 후 3.97±.36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96$, $p<.001$). 이는 융합수업 적용 전 전공만족도가 3.54점에서 융합 수업 적용 후 3.97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같은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므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업 과정 중 부서장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 봄으로서 전문직의 자부심과 직업관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융합수업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참여 및 집중력 향상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면서 진로준비 행동력도 같이 발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Jung과 Jeong[29]의 연구에서 플립드 러닝 적용 전 전공만족도 점수가 3.56점으로 나타난 것과 본 연구의 융합수업 적용 전 전공만족도가 3.54점과는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이지만 Jung과 Jeong[29]의 전공만족도는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 지속적인 반복학습이 교실수업에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Park[30]의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공만족도의 점수가 3.91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과와 과목, 대상자 간의 전공만족도 정도가 상황과 교과목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한 학생의 5년간 연도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3월 1일자에 100% 취업하였으나 12월의 취업 유지율은 3명의 졸업자가 중도 탈락하여 9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논의를 하겠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내용 중 블렌디드 수업을 통하여 먼저 공부하고 숙지하도록 한 후 면대면 수업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교육되어지고, 취업하기 원하는 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취업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겨 이탈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비교할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비슷한 상황에서의 추후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의 특성상 횡단적 시점에서 동시에 조사해야만 실험에서 예상되는 오염의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진행하기에는 학생 수가 적어 누적된 연구의 가치를 이룰 수가 없고, 장기간 진행된 누적된 결과를 공유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융합수업 운영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단일군 비교연구로, 지역사회요구에 맞추어 일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취업과 연계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으며, 향후 취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간호대학 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답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전공만족도를 함양하도록 하며, 대학 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결과 긍정적 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4학년의 졸업예정자 중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단일군으로만 진행되어 대조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 M. Kwon, M. S. Kwon & J. Y. Park. (2016). The Effects of a gerontological nursing clinical

practice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421-427.

[2] J. A. Kim. (2013).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339-349.

[3]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Van Esbroeck, R. &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3), 239-250.

[4]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De. <http://www.kedi.re.kr>

[5] K. S. Jang & S. J. Park. (2012). Effects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 Co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4), 442-451.

[6] J. E. Jeong & C. Y. Jyung. (2015).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1), 79-96.

[7]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ttp://www.kabone.or.kr/k_abon02/index.php

[8] E. Y. Choi & J. Y. Kim. (2007). The relationship of core competencies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4), 412-419.

[9] N. Y. Yang & S. Y. Moon.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33-42.
- [10] H. M. Ki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8(4), 399-408.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0.313>
- [11] H. S. Park & K. S. Jeong. (2013).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49-557.
- [12] T. J. Jang & M. K.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22(4), 344-352.
- [13] E. Y. Choi, M. J. Choi & S. B. Park. (2016).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334-344.
- [14] S. M. Kim. (2017). The Effect of Blended Learning Approach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 Directed Learning Skills of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7(2), 330-338.
- [15] H. S. Jung. (2005). *Effects of self-directedness, task values, and learning typ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aster's thes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J. S. Yang. (2017).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or four-year college graduates over the past decade*.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www.krivet.re.kr
- [17] Social Customization and Revitalization Plans, Seoul: Education ministry 2016.
- [18] H. Kwon. (2019). Exploratory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epartment of Social Customization Curriculu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10), 87-100.
- [19] L. M. Guglielmino.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20] K. O. Yoo & J. W. Cheong. (1998). Demographic and Social Psychological Variations to Adults' Self-direction in Learning. *Korea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4(1), 119-149.
- [21]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es]. Seoul University, Seoul.
- [22] D. J. Lee.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es]. Yonsei University, Seoul.
- [23] J. I. Choi & J. S. Choi. (2012). The effects of learning plans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on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4), 221-24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63051>
- [24] Y. J. Ha, S. J. Woo & N. S. Seo.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Blended Lear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09-517.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09>
- [25] B. N. Kim. (2006). A Comparison Study on the Instruction Effects of Blended Learning and Traditional Face-to-Face Learning in University, [master's thes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26] M. j. Chae. (2016).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Learning Attitud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4), 793-816.

- [27] S. Y. Kim & H. S. Kim. (2020). Effects of the SBAR Training Program in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 1071-1086.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1071>

- [28] S. Y. Kim. (2017).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 Solving Skills, Satisfaction of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0), 313-330.

- [29] M. R. Jung & E. Jeong. (2017). Effects of E-book-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490-501.

<http://doi.org/10.5392/JKCA2018.18.02>

- [30] Y. H. Park. (2019). Relationship among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ning and Major Satisfa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7(4), 117-124.

김혜숙(Hye Sook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자 관리

· E-Mail : khs5@cdu.ac.kr

송환(Hwan Song)

[정회원]



- 2002년 8월 : 숭실대학교 화학공학학과(공학석사)
- 2006년 2월 : 숭실대학교 화학공학학과(공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화학, 화장품학

· E-Mail : songhwan@cdu.ac.kr